



외교부

공동보도자료



대한민국 대전환  
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21-769
배포일시	2021.10.12.(화)	담당부서	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
담당자	정기원 /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에너지과학외교과장 (02-2100-8192)		
	이선주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 백신도입총괄팀장(044-202-3811)		
	박준구 /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계약팀장 (043-719-6810)		

**국제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**  
**- 정부, 베트남 및 태국에 대한 백신 최초 공여 -**

-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추진합니다.
-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및 태국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 및 47만 회분 공여를 결정하였으며, 동 백신은 10월 12일 인천을 출발하여 13일 양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
- 금번 백신 공여는 10월 12일 0시 기준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77.9%(18세 인구 대비 90% 이상)로서, 현재 국내 도입(예정)된 물량으로도 2차 및 추가 접종 등 계획된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,
  -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 및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, 신남방 정책, 코로나19 피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.

- 베트남은 15.6만여 명의 우리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신남방 정책 핵심 협력국으로서,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-베 정상회담 시 우리 측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베측에 100만 회분 이상의 백신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
  - 또한, 태국은 1.8만여 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, 4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한 신남방 정책 핵심 협력국으로, 지난 8월 우리 외교장관의 태국 총리 예방 시 양국은 백신 개발 및 생산 협력 등 관련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.
  - 우리 정부는 그동안 베트남 및 태국 정부와 백신을 안전하게 공여하는 방안과 함께 동 백신을 우리 재외국민을 포함한 베트남 및 태국 내 접종 대상자에게 신속 접종하는 것을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.
- 금번 공여가 양국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, 향후 국내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을 보아가며 백신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.

/끝/